

□해태상사·종합청사 국회의
사당 삼립식품 사건을 분석한다.

범양돈인들의 참여로 해태상품 불매운동을 벌였다.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인 대응노력

87년은 축산인을 포함한 전 농민을 어둠의 긴 터널속을 걷게 만든 한해였다. 미국의 쇠고기등 축산물의 수입개방압력이 본격화되자 대표단이 구성되어 협상의 테이블까지 마련하는 법석을 떨었지만 결국은 쇠고기수입(관광호텔용), 양담배가격인하, 보험회사합작설립 등 광범위한 농축산물과 서비스산업개방 압력을 저지하는데 뾰족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현재까지 공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통상법 301조를 앞세워 강하게 자국의 생산자들을 위해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실시하라고 하는 만큼 국내에 머지않아 외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와 국내 생산자들을 위협하게 만들 것은 뻔한 사실이다.

이에 맞서 양축업자들의 반발도 거세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보호그늘에서 자라온 한국의 축산업자들이지만 생존권 사수와 미래의 축산업을 위한 능동적인 대처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양돈인 해태상품 불매운동

해태상사는 지난 82년 전남나주군 반남면 청송리에 직영양돈장을 신축 83년12월에 완공하였다. 양돈장 설립의 목적은 자체 육가공에 최적합한 돈육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그후 83년 해태육가공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미국호멜사와 기술제휴를 승인받아 84년7월 착공하여 85년5월에 시험가동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86년말 제일제당에 당초 미국호멜사와 체결한 기술제휴 승인권을 양도하여 육가공공장설립을 백지화하였다.

그보다 앞서 84년2월 전남도협의 회에서 해태측에 돼지입식유보요청으로 공장가동시 소요되는 생돈은 전남도내에서 구입, 직영양돈장은 가공에 최적합한 돈육생산을 위한 유전학적 분석용 시험장으로 활용한다는 회신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87년7월 해태는 육가공공장설립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덴마크산 수입통조림 54%를 들여와 양돈협회 전남도 지부장단이 대책회의를 가져 해태의 부당성을 양돈협회중앙회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태측에서는 돈육통조림 수입판매금액의 5%를 기부금으로 한다는 제의를 해왔으나 양돈협회에서는 제3차 긴급이사회를 개최 이문제를 주요안건으로 처리하는 동안 87년 10월 해태측은 수입통조림을 시판하기 시작하여 이에 따라 본격적인 해태그룹대농민 약속이행촉구 및 통조림 수입시판중지요구를 전국양돈인 일동으로 표명하고, 범해태상품불매운동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이와 아울러 기부금 5%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적극 불매운동을 강화해 갔다.

이렇게 양돈인들이 적극공세로 나오자 해태측에서 원만한 합의에 임해 돈육통조림수입 일체금지, 나주양돈장은 현재의 두수에서 20% 감축하여 증식을 억제하며, 육가공공장은 여건이 조성되면 건립하기로 전남도 협의회와 합의를 하였고 이를 중앙회에 통보하였다.

이에 양돈협회는 전국임원·지부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사과문안중 일부문구를 수정보완하여 축산전문지에 게재하는 조건으로 양돈인의 완승으로 결론이 내렸다.

전국 양돈 농민들에게 드리는 사과문

1. 해태상사(주)가 수입한 덴마크산 듀립 통조림으로 인해 말썽을 빚어 양돈인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폐사는 이미 지난 10월 15일자 해태상사(주) 대표이사 유영일 명의로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에 보낸 "돈육통조림 수입중지" 통보대로 앞으로는 외국산 통조림을 일체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 해태그룹은 조국이 해방되던 1945년 10월 3일 순수한 우리민족 자본으로 창립되어 국내 식품업계의 선두주자로 소비자의 사랑과 아낌을 받아온 해태제과(주)가 모체가 되어 탄생한 국내 최고의 식품산업 그룹입니다.
"보람을 삼는 기업" "사랑이 있는 기업" "새로움을 찾는 기업"을 이념으로 해서 소비자를 위하고 소비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믿음과 사랑을 키워 온 기업이 다수 양돈 농민의 주장을 결코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
3. 해태그룹의 기업정신이 옳고 지 소비자를 위하고 소비자편에서서 식생활 향상을 위해 식품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열사인 해태상사(주)가 작금의 돈가하락등

활로찾기에 부실하고 있는 양돈업계의 현실을 외면한채 정부의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서 EEC지역에 대한 수출극대화 및 무역불균형에 따른 마찰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입한 덴마크산 돈육 통조림 건으로 양돈 농민들과 불편한 관계를 있게 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4. 돈육 통조림 수입은 해태상사(주)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해태제과(주)는 양돈업계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양돈업계의 활성화와 권익증대를 위해 해태상사(주)로 하여금 그 수입을 중단토록 요청하였고 이를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5. 아울러 해태제과(주)는 전남 나주에 세운 양돈장 건립시 양돈농민들과의 기약했던 바대로 육가공 사업에 기필코 참여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1987. 11. 1

※ 전국 양돈 농민들에게 드리는 이 사과문은 해태제과(주)가 광고란을 정식 계약하고 게재한 문안임.

해태제과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강 남 형

쇠고기 수입문제와 낙농육인들의 집단항의

우리나라 소사육농가는 100만호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낙농육우산업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따라 사육규모가 급속히 발전해왔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에서 쇠고기를 그대로 국내시장에 들여온다는 것은 다키워놓은 보

리밭을 이웃집 자가용이 지나가 망쳐 놓는 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한때는 육성시킨다는 명목으로 입식자감까지 지원해놓고 그간 다 자란 소들이 오갈데 없이 만든 상황에서 수입개방을 실시한다는 것은 양축농가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므로 전국낙농육우인들은 이 문제를 86년 경제기획원에 한국낙농육우협회명의로 쇠고기 수입



정부 제2종합청사에서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고 있다.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경제기획원장관은 회신에서 "신문에서 발표된 쇠고기 수입개방은 대미통상 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며, 앞으로도 쇠고기 수입문제는 국내 축산정책을 고려 신중히 검토,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일10410-255, '86.6.8)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의 회신은 "소값이 완전회복될때까지 일반수급용은 물론 극소량의 관광호텔용 쇠고기라 할지라도 일체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대축01254-950 '86. 6.18)

정부는 관광호텔용쇠고기라 할지라도 일체 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

또한 낙농육우인지도자대회 좌담회(주최: 한국낙농육우협회 '87.12.11)에서 당시 농림수산부 김광희 축산국장은 "쇠고기 수입문제는 전체 농민의 생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소값이 안정된다면(지육 kg당 5천 원선정도)몰라도 현재로서는 절대

로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국내 축산정책이 매번 양축농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천명을 해왔다. 그러던 것이 급선회되어 일방적으로 미국의 대한시장 개방요구를 수용, 금년 2월 새정부출범 이전에 관광호텔용 쇠고기수입허용 방침을 보도(조선일보 '87.12.22)하는 등 수입개방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전국낙농육우인 모두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12월28일 쇠고기 수입저지 결의대회 개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별 결의대회를 개최기로 하고 서울·경기·인근지역에서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회를 열 것과 동시에 88년1월8일 전국규모의 대규모 행사를 정부 제2청사 광장에서 열 것을 결의했다.

12월30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낙농육우인들이 약2천여명정도 모여 김의수회장의 대회시작 선언과

함께 "쇠고기수입반대"를 열창하며 세종로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시도하였으나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바람에 불발로 그쳤다. 이에 일부 낙농인대표들은 민정당사를 방문 낙농육우산업의 현위치와 견해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와 의지를 전달했다.

다시 88년1월8일 과천 정부제2청사에 모인 육우인은 넓은 대회장의 반이상을 매웠다. 오후 2시에 새벽우유를 짜고 상경한 사람들, 아예 작업복에 장화를 신고 온 사람들이 그간 꾀꾀 눌러 참았던 울분이 일시에 터지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쳐댔다.

대회가 오합지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위원을 구성, 책임자의 답변을 얻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 농림수산부 장관과 협상에 들어가 결의문을 전달하고 직접낙농육우인에게 의사전달을 요구했으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주무부서인 경제기획원장관실로 향했으나 시원한 답변은 듣지못한채 물러나왔다.

이에 격분한 군중은 종합청사 1동앞으로 모여 과격한 시위가 본격화 되었다. 물건을 태우는 연기, 박살난채 없어진 차, 건물대형유리창의 파편들이 이성을 잃은 군중은 지금까지의 고통을 한꺼번에 노출시키는듯 대회장이 수라장이 되었다.

군중이 약간 지쳐있는 듯하자 농림수산부장관이 직접나와 "만약쇠고기를 수입한다면 국내 소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보상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나서 오후5시30분에 폐회를 선언하고 끝마치려하자 집행부의 차량 집기를 부수며, 방해로 하고 대회 책임자가 구타당하기도 하여 농민들의 울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삼립식품에 계란의 공동유통 질서 확립요청

본회는 지난 1월5일 전국양계인 대회를 거쳐 서울역앞광장에서 닭고기·계란수입결사반대(MBC-TV 방영)시위를 필두로 어떠한 입장에서건 생업시수를 위해 단체 행동 체제에 돌입하였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삼립식품의 계란구매시 생산지 출하가격으로 수매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이것은 유통구조를 혼란케하여 악덕상인으로 하여금 생산자가 더욱 수탈을 당하여 도산하게 된다는 결론으로 규정짓고 대한양계협회,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 전국계우회연합회가 공동작성한 유통질서 확립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요청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사에서는 계란구매에 있어 일부 악덕상인으로부터 불공정한 덤핑구매로 계란 유통질서의 혼란은 물론 악덕상인을 통한 무자비한 양계농가 착취를 조장하는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농가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생산자 일동은 귀사가 계란구매를 정상화 하지 않는다면 유통구조의 혼란으로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크게 후퇴할 수 밖에 없으며 양계농민은 귀사에 납품하는 악덕상인으로부터 계속적인 수탈과 착취를 당해 결국은 도산할 수 밖에 없는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에 귀사의 상인을 통한 양계농가 착취를 조속히 시정하고 생산자 단체나 기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생산자 재판매자 소비자 모두가 공생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기를 요청하며, 이러한 양계농민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뒤에 서울역사가 보인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귀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악덕상인(장명환)을 축출하고, 양계농가와 귀사와의 유대가 더욱 돈독히 되기를 바란다. 본건에 대하여 1월15일까지 회신 바란다. (계란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요청서 요약)

이 요청서에 대해 삼립식품의 책임자가 직접 찾아와 요청서 제출 단체에 불공정행위를 즉각시정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했다.

이같이 축산인은 이제 시대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는 굳은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래도 나만 살겠다는 생각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공정한 방법으로써,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생업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면 모두가 힘으로 뭉쳐 대항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유리한 입장으로 대외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해치 못하게 되면 문

제는 풀리지 않고 과격시위에 기물 파괴만 하게되는 꼴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정부 또한 정책변화시 마다 솔직한 진위를 밝혀 국민 공동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피해가 극소화될 수가 있다. 개방이 되기 전날 사건을 발표하는 식의 정책은 이제 없어야 하며 농민 또한 무작정의 보호육성에서 벗어나 대응력을 키워나가는 그야말로 일치단결하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 시행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해 본다. **양계**

